



Hello! I am Sister Mary Philip Aaron. I entered the community in 1950 with the "Holy Year Group." I may not need an introduction to many of you after all these years. I also spent three happy years in Korea in 1993, 2002, and 2003 teaching English Conversation at St. Joseph High School in Gangjin.

I was born into a typical middle class American family of six children where our lives were formed on family, church, and school. My twin brother Phil, and I, were the youngest.



We were typical teenagers until I entered the convent and he became a Brother of Mary.

My early ministry experiences were in education, teaching high school science and in administration. My first ministry in social work was in managing an apartment building for senior citizens when I returned from Korea. The government subsidized the rent so that residents could live in a safe and pleasant environment. My task was to maintain the building of 100 apartments and keep the clients happy.

Later at Rendu Services, my next assignment, we ministered to families of coal miners who were left behind when the mines failed. They were mostly elderly and with low or no income and uneducated. This ministry was jointly sponsored by the Daughters of Charity,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and the Sisters of



Charity of Nazareth. We conducted food pantries and used clothing drives. Periodic social activities such as parties, picnics and games, classes in sewing and quilting helped to relieve their feelings of isolation. We also had a mobile medical van staffed by two sister nurses which traveled through the mountainous area seeing to health needs. We tried to emulate the work of Blessed Sister Rosalie Rendu, DC who did similar work in

Paris with St. Vincent DePaul.

As I look back on the years of work with the disadvantaged I realize that in so doing I followed in the footsteps of Rosalie and more importantly in the footsteps of Christ.





안녕하세요! 메리 필립 애런 Mary Philip Aaron 수녀입니다. 저는 가톨릭 교회의 희년禧年인 1950년에 입회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어쩌면 많은 수녀님에게 제 소개가 필요가 없을 지도 모르겠어요. 또, 1993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3년 동안은 강진 성 요셉 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6명의 자녀를 둔 전형적인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가족과 교회, 학교가 중심이었습니다. 저와 쌍둥이 형제인

필Phil이 형제 중 막내였어요. 제가 수녀원에 들어오고 필이 마리아 수교회 수사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평범한 십대를 보냈습니다.

저의 초기 사도직은 교육 사도직으로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행정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첫 사도직은 한국에서 돌아와서 많은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아파트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주하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건물 안에 있는 100개의 집을 관리하고 거주자들이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다음 사도직인 랑뒤 서비스Rendu Services에서는 광산이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은 광부들의 가족들에게 봉사했습니다. 대부분이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고 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었습니다. 랑뒤 서비스는 우리 수녀회와 사랑의 딸회, 나자렛 사랑의 수녀회가 함께 지원하는 사도직이었습니다.



무료 급식과 중고 의류를 나르는 일을 하고, 파티와 소풍, 게임, 바느질과 퀵트 같은 정기적인 사회활동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또, 간호사 수녀님 두 명과 함께 의료봉사 차량을 운영하여 산간지역을 다니며 주민들의 건강을 돌봤습니다. 성 빈첸시오 드 폴과 함께 파리에서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랑의 딸회 복녀 로잘리 랑뒤Rosalie Rendu를 본보기로 삼아 따르려 했지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일했던 그 시간을 뒤돌아보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복녀 로잘리의 발자취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랐음을 깨닫습니다.

